



식약처, 하수기반 마약류 실태조사 관련 관계기관 회의 및 국제 세미나 개최

-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동향 활용 현황 공유하고 향후 협력 사항 논의
- 국내에서는 검찰·경찰·해경·국정원·국과수·보건환경연구원, 해외에서는 UNODC 및 유럽·호주·뉴질랜드 관련 기관 참석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8월 13일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*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효율적인 실태조사 진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연구자·전문가*가 참석하는 온·오프라인 회의를 세종시티오송호텔(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)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.

* 식품의약품안전처, 대검찰청, 경찰청, 해양경찰청, 국가정보원, 국립과학수사연구원, 17개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, 부산대 등 5개 대학 연구자·전문가

< 하수역학 개요 >

- ◆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, 하수유량과 하수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(사용추정량)
 - ▶ 수사·단속기관의 적발 외에 실제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호주와 유럽연합 등에서도 활용 중인 조사기법
 - ▶ 실제 사용량은 ▲시료채취 시기 ▲하수로 폐기된 마약류의 양 ▲허가된 의약품의 (몸에 흡수돼 밖으로 배출되는)대사물질 등 영향으로 사용추정량과 차이가 있음
- ◆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오정은 교수 주관 하수역학 연구팀(경상국립대학교, 상지대학교 연구진 참여) 용역연구로 수행 중('20~)

아울러, 해외 관련기관과의 세미나도 함께 개최하면서 국내외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행태 실태조사 결과 및 최근 연구 동향이나 국가별 실태조사 결과 활용 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.

* 유엔마약범죄사무소(UNODC),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모니터링센터(EMCDDA) 하수분석 연구기관(SCORE), 호주범죄정보위원회(ACIC), 뉴질랜드 경찰청, 뉴질랜드 환경과학·연구기관(ESR)

특히 이번 관계기관 회의에서 식약처는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.

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“최근 마약류 오남용과 중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‘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’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.”며, “앞으로 분석·조사 방법의 효율화·고도화와 결과에 대한 활용도 확대·강화를 바탕으로 실태조사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.”고 강조했다.

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정책추진에 있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빈틈없이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
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.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·지인이 있다면,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☎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식물의약품안전처 | 보건복지부

#ADHD #살빼는 약 #나비약 #마약 #대마 #향정

“마약 문제로 힘들 땐”
언제 어디서나 누구나

고통스럽고,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, **1342**가 함께 할게요.

1342
당신의 일상 SOS 24시간 사이

담당 부서	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현철 (043-719-2808)
		담당자	사무관	박미영 (043-719-2801)

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
10년 지켜온 국민안심, 100년 이어갈 안심기준

더 아픈 환자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대한민국
지자체브리핑

OPEN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